

심리적 거리감이 범죄 불안에 미치는 효과: 묻지마 범죄와 특정인 대상 범죄 간 차이*

김 단 희¹⁾ 박 혜 원²⁾ 윤 상 연^{*}

이 연구는 심리적 거리감(시간적, 공간적)이 범죄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10년 전) × 공간적 거리감(국내 vs. 국외(미국)) × 범죄 심각성(낮음 vs. 높음)의 8가지 시나리오 조건별로 55명을 할당하여 총 4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조건별로 다르게 설정된 ‘묻지마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 불안 수준(11점 Likert 척도)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의 주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심각성의 주효과만 확인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는 공간적 거리감과 심각성에서만 확인되었다. 즉, 심각성이 낮은 범죄 사건에서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있었지만, 심각성이 높은 범죄 사건에서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시간적 거리감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의 원인을 찾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묻지마 범죄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묻지마 범죄와 대비되는 특정인(친구) 대상 범죄 시나리오를 추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20년 전) × 범죄 유형(묻지마 범죄 vs. 특정인 범죄) × 범죄 심각성(낮음 vs. 높음)의 8가지 조건별로 60명을 할당하여 총 4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극단치 3건 제외). 분석 결과, 시간적 거리감, 범죄 심각성, 범죄 유형의 주효과 모두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적 거리감과 범죄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정인 범죄의 경우에는 연구 1에서 기대한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묻지마 범죄가 시간적 거리감에 상관없이 높은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기존 연구들에서 범죄 불안에 시간적 거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범죄 불안, 해석수준 이론,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 묻지마 범죄

* 이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2023학년도 기초보호학문(사회계열) R&D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1)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2)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E-mail: yoonsangyeon@gn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찰청은 한국 범죄 발생률이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는다(통계청, 2018). 그러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8%의 사람들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20.6%)을 꼽았고, 국가안보(18.6%)와 환경오염(13.5%)이 그 뒤를 이었다(통계청, 2018). 최근 통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 여성가족 리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서울시민의 범죄 불안은 오히려 증가했다(이재경, 2024).

한국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범죄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학자들은 자극적이고 과도한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를 꼽고 있다. 사람들은 각종 미디어의 범죄 관련 보도나 지인의 정보 등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범죄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지서이, 이정원, 2023).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기 힘들지만, 태도, 기호, 인지,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Severin & Tankard, 2001). 즉, 실제보다 과장된 언론 매체의 범죄 보도로 인해, 범죄 피해 가능성과 위협 가능성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개인의 안전에 대해 불신과 의심을 만들어(박지선, 박상조, 2013),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다정, 양재원, 2023).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한다(Steers et al., 2004). Maslow(1943)의 욕구위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에 따르면 안전욕

구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개인은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새롭고 다양한 범죄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범죄 현상의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자극적인 범죄 보도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양영유, 이완수, 2020).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묻지마 범죄¹⁾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범죄 불안이 가중된 바가 있다. 묻지마 범죄의 폭력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범죄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범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경우, 제목에 살인 사건임을 명확히 밝히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의 비율이 91.9%나 될 정도로 많았고, 이는 다른 살인 사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다(이완수 등, 2016). 수년 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무려 72.8%가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리얼미터, 2016). 이는 국민의 다수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년에 50건 정도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범죄의 약 0.00003% 정도에 불과하다(정혜욱, 2024). 이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

1) 묻지마 범죄의 용어와 정의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2023. 8. 23.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이상동기범죄’로 통일되어 학계 및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다(윤상연 등,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대중성 및 직관적 이해를 위해 묻지마 범죄로 사용하였다.

신이 묻지마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위험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구도 범죄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묻지마 범죄의 불확실성이 안전에 대한 개인의 위협 지각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윤상연 등, 2023).

사람들이 범죄 사건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동과 상호작용을 저해하며 범죄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정혜성 등, 2023). 또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범죄 두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점차 가족, 지인,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되는 범죄 두려움의 영향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Wilson, 1982), 신뢰 감소는 다시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결국 외부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킨다(Ross, 1993).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키기도 한다(장현석, 2016).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은 물론 정계를 향해서도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윤상연 등, 2023).

본 연구는 범죄 유형 중 높은 불안을 유발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범죄 불안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묻지마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지만, 범죄의 특성상 언론에서 이슈가 되기 쉽고 다른 범죄들보다 더 자극적이고 과장되어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이완수 등, 2016), 범죄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 적합한 범죄 유형으로 예상하였

다. 따라서 연구 성과를 통해 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은 물론 언론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를 적절히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범죄 불안

각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죄 불안(anxiety of crime) 개념은 범죄 두려움(fear of crime), 범죄에 대한 공포,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차훈진, 2011). 이 연구에서는 범죄 불안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 불안과 자주 함께 쓰이는 범죄 두려움과 비교하였다. 두려움과 불안은 부정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준다는 점과 위험 자극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행동의 경향성 또는 생리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조은경, 1997).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은 심리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안은 구체적인 위협적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으로 나타내지만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공포로 나타난다(Marks & Lader, 197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DSM-IV-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서는 불안을 “미래의 위협에 대한 부정적 예감이나 긴장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상태”로 정의하는데, 불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위협적 대상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두려움은 현재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위협적 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된다(Lazarus, 1991).

Epstein(1972)에 따르면 두려움은 대처 행동,

특히 도피와 관련이 있는데 대처 시도가 실패하여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은 불안으로 변한다. Lewis 등(2008)은 불안에서 위협적 대상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어렵지만 두려움에서 위협적 대상은 구체적인 실체로 파악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노성훈과 조준택(2014)이 제시한 일상 범죄 두려움 개념과도 일치한다. 이들에 따르면 일상 범죄 두려움은 특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적 수준의 불안감을 의미하므로, 특정 범죄 유형을 염두에 두고 시간, 공간, 사회적 맥락에서 범죄 발생 위험성에 기초하여 피해 위험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일상 범죄 두려움의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불안에 가깝고,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의 개념은 심리학적 의미의 두려움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이 아닌 비면식 대상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묻지마 범죄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가 막연한 대상에 대한 정서인 불안에 가깝다고 보았다.

범죄학에서는 범죄 피해의 위험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 심각성’, ‘피해 가능성’, ‘통제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Darker, 2020; Jackson, 2011). 개인이 범죄를 심각하게,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게, 범죄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낮게 느낄 때, 범죄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불안에는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 지각이 영향을 미쳐, 개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안은 커지게 된다(박철현, 박

성훈, 2015).

그러나 범죄에 대한 불안 수준이 일차적으로는 범죄 유형에 결부된 객관적 속성인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관련하여 결과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다(김범준, 2007; Chadee et al., 2020; Roche et al., 2020; Smith & Hill, 1991). 이처럼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 불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변인이므로(박철현, 박성훈, 2015), 이 연구에서도 범죄 불안 형성 과정에서 범죄 유형에 따른 심각성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거리감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level Theory)은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 다른 심적 표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Trope & Liberman, 2010). McCrea 등(2012)에 따르면 개인이 식별하고 해석한 정보가 추상적이고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면 상위 해석 수준으로 분류된다. 상위수준의 처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 반면, 식별한 개념이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정보에 해당하면 하위 해석 수준으로 분류하며 하위수준의 처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들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McCrea et al., 2012; Trope & Liberman, 2000; Trope & Liberman, 2003). 즉,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클수록 전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심리적 거리감이 작을수록 구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은 ‘지금

여기의 나로부터 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멀리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Trope & Liberman, 2010). 개인은 현재 위치(here), 현재 시점(now), 자기 자신(self)을 기준으로 대상이나 사건과의 거리를 ‘가깝다’고 느끼거나 ‘멀다’고 지각한다(Trope & Liberman, 2003).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심리적 거리는 자기중심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수치적인 위험 정보를 접할 때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위험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치라도 자신과의 관련성에 따라 위험 평가와 반응이 달라진다(오지현, 김영옥, 2021).

해석 수준 이론에서 심리적 거리감은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²⁾, 확률적 거리감³⁾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Trope & Liberman, 2010). 시간적 거리감(temporal distance)은 지각된 거리감(perceived distance)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개인은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해석을 사용하고, 가까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하위 수준의 해석을 사용한다(Trope & Liberman, 2003).

공간적 거리감(spatial distance)은 개인이 느끼는 공간적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Trope & Liberman, 2003). 일반적으로, 공간적 거리감이 작을 때보다 클 때 전체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을 해석할 때 가까운 사건보다 훨씬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해석하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공간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김해룡, 박민수, 2013).

이 연구에서 변인으로 심리적 거리감 중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을 선택한 이유는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기본 정보가 시간적, 공간적 정보이기도 하며 또한,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arke et al., 2016). 반면, 심리적 거리감을 조작하는 연구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거리감은 실험 참여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데 시나리오 상의 피해자와 관계를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⁴⁾. 또한, 확률적 거리감과 관련하여 문자매체 범죄는 그 특성상 불확실성과 심각성의 조합에 의해 불안을 야기하고 개인의 발생 확률 판단을 왜곡시킨다(유성진 등, 2003; Lake & LaBar, 2011).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적 판단에 의한 정서적 반응인 불안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확률적 거리감은 별도로 조작하지 않았다.

2)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개인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친밀한 개인에게는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Trope & Liberman, 2003).

3) 확률적 거리감(hypothetical distance)은 개인이 특정 상황의 발생확률을 높게 지각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낮게 지각하면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Trope & Liberman, 2010).

4) 실제로 현행법에서 언론 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 정보를 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박경규, 2021).

범죄 불안과 심리적 거리감

개인은 직접적으로 범죄 사건에 노출되지 않아도 범죄 불안을 느낄 수 있다(Chadee et al., 2007). 일반적으로 불안은 심리적 거리감과 사고의 구체성 또는 추상성에 대한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진용, 여준상, 2020). 심리적 거리감은 개인이 '지금 여가'를 초월하여 간접적으로 범죄 사건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Mellberg et al., 2024). 즉, 개인이 즉각적인 맥락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경험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Trope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감은 시간과 공간, 사회적 관계, 발생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장단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장소, 시간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위험 정보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낄 때 그 위험이 개인과 더 관련성이 높다고 지각하며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Gouseti & Jackson, 2015). 또한,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작하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과 개인의 주관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Trope et al., 2007). 따라서 개인이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범죄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주관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범죄 불안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론적 질문이다(Gouseti, 2016).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Williams 등(2014)은 참가자들이 심리적 거리감이 큰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때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모두에 대해 향상된 평가를 하는 것을 발견했

다. 시간적 거리감이 클 경우, 사람들이 사건을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게 되어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적 사고는 증가하였다. 이는 범죄 사건을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때, 범죄와 자신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Gouseti와 Jackson(2015)의 연구 결과에서는 범죄 두려움이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감이 작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심리적 거리감이 클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졌다. Nook 등(2017)의 연구에서도 앞서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은 부정적 그림을 보았을 때,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지각하면 더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다(Nook et al., 2017). 즉, 부정적 사건에 대한 불안은 그 사건을 지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의 한 연구(Gao et al., 2022)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작은 조건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더 강한 불안을 느낀 반면,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큰 조건에서는 동일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안을 덜 느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거리감(시간적, 공간적)에 따라 범죄사건에 대한 불안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선행 연구에서 심리적 거리감 중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강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Gao et al., 2022). 이는 사건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할 때 그 사건의 영향을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Gouseti & Jackson,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사람들이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클 때보다 작을 때 범죄 사건에 대해서 더 강한 불안을 느낄 것으로 가정하였다.

문지마 범죄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와 결과의 해석에서 문자 범죄에 주목하였다. 문자 범죄는 그 특성상 확률 지각 측면에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자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이해관계가 없는 비면식 관계에서 일어나며(윤선영 등, 2017),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 행사를 가한다(윤정숙 등, 2014).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의 범죄 발생확률 지각의 오류, 특히 과대 지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자 범죄의 예측 불가능성은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최종술, 2016),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등 왜곡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접한 문자 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문자 범죄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이다. 문자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진 않지만, 범죄 불안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범죄에서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는 선행연구(김연수, 2022)를 바탕으로, 문자 범죄에서도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문자 범죄에 대한 불안 수준이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1. 심리적인 거리감과 심각성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공간적 거리감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심각성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1의 주요 목표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범죄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먼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의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대, 신체적 방어능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불안 수준이 범죄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pielberg의 상태불안 척도(4점 Likert 척도, 20개 문항)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시나리오의 8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작위로 노출시켰다. 노출 후 응답자들이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고자 시나리오를 읽은 후 조작한 주요 변인 3가지(시간, 공간, 심각성)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주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분석 시 시나리오를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이후 응답자들은 시나리오를 보

고 느낀 불안, 두려움, 피해 발생 가능성을 11점 Likert 척도의 단일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SPSS Statistic 27.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불안에 대한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보고하기 위해 Cohen's d ²를 사용하였다⁵⁾.

연구대상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10년 전) × 공간적 거리감(국내 vs. 국외(미국)) × 범죄 심각성(낮음 vs. 높음)의 8가지 조건별로 55명을 할당한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인터넷 실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건별로 55명의 데이터를 얻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15명(48.9%)이고, 여성은 225명(51.1%)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94명(21.4%), 30대가 105명(23.9%), 40대가 104명(23.6%), 50대가 80명(18.2%), 60대 이상이 57명(13%)으로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측정도구

신체적 방어능력

신체적 방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

5) 일반적으로 Cohen's의 d^2 값이 .01정도면 효과가 작은 수준이고 .06정도면 중간 수준, .14정도면 큰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Cohen, 1992).

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공격 시 귀하의 신체적 방어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불안척도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범죄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상태불안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 등(1996)이 Spielberger(1983)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측정 도구를 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상태불안 질문지(STAI-Y)는 긍정 문항 10개와 부정 문항 10개가 포함된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대단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 중 1, 2, 5, 8, 10, 11, 15, 16, 19, 20번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채점된다. 총점은 최고 80점, 최저 20점이며 점수가 80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의 상태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진 등(202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불안

범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Likert 척도(0: 전혀 느끼지 않았다, 10: 매우 강하게 느꼈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얼마나 불안함을 느끼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두려움

범죄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Likert 척도(0: 전혀 느끼지 않았다, 10: 매우 강하게 느꼈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

과 같다. “당신은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10년 전), 공간적 거리감(국내 vs. 미국), 범죄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심각성(낮음 vs. 높음) 세 변인을 조작하였다.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시나리오에서는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예시1-1) 조건: 시간적 거리감(저), 공간적 거리감(저), 심각성(고)

[속보] 한파 속 대형마트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

불과 하루 전인 00월 00일[PROG: 날씨는 설문 응답 하루 전날로 자동 적용] 오후 6시, 노숙자 박씨(45)는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는 L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마트 입구를 막아선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불과 5분 가량의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CCTV 확인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해간 20cm의 식칼을 휘둘렀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찔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 박씨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지만 경찰의 강력 진압에 금방 체포되었다. 최근 박씨는 L마트 인근 폐건물에서 홀로 생활해 왔으며, 평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평소 마트를 자주 방문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다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종종 마트 이용자와 시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곤 했지만 이런 범죄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한다.

예시1-2) 조건: 시간적 거리감(고), 공간적 거리감(고), 심각성(저)

[기획기사] 묻지마 범죄,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10년 전인 2014년 8월 17일 오후 6시, 노숙자 대릴(Darryl, 45)은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두 명의 옷이 찢어지는데 그쳤다고 한다. 대릴은 마트 입구를 막아선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불과 5분 가량의 시간 동안 주민들과 대치하였다.

CCTV 확인 결과, 대릴은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해간 20cm의 식칼을 휘둘렀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를 입히려 하였고 대부분 무사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 대릴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지만 경찰의 강력 진압에 금방 체포되었다. 당시 대릴은 마트 인근 폐건물에서 홀로 생활해 왔으며, 평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평소 마트를 자주 방문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다 직원들에게 쫓겨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종종 마트 이용자와 시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곤 했지만 이런 범죄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한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불안과 두려움, 성별, 연령, 상태불안, 신체적 방어능력,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 분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불안과 두려움($r=.895$, $p<.001$), 성별($r=.24$, $p<.001$), 연령($r=.15$,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적 방어능력($r=-.26$, $p<.001$), 심각성($r=-.18$,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안은 상태불안,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참조).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의 공변량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세 가지 요인(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성별, 연령, 신체적 방어능력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을 수행하기 전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05$)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다.

공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 신체적 방어능력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모형은 불안에 대해 13.7%의 설명력을 가졌다($R^2=.157$, $adj. R^2=.137$). 심각성 주효과만 확인되었고($F(1,429)=22.02$, $p<.001$, $\eta_p^2=.049$), 덜 심각한 사건($M=6.71$, $SD=2.18$)보다 더 심각한 사건($M=7.45$, $SD=1.98$)에서 불안이 유의하게 높았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440)

	1	2	3	4	5	6	7	8	9
1. 불안	-								
2. 두려움	.90***	-							
3. 성별(남=1,여=2)	.24***	.23***	-						
4. 연령대	.15**	.12*	.03	-					
3. 상태불안	.08	.05	.08	-.13**	-				
4. 신체적 방어능력	-.26***	-.23***	-.44***	-.22***	-.28***	-			
7. 시간적 거리감	-.04	-.03	.00	-.03	.00	.11*	-		
8. 공간적 거리감	.07	.06	-.01	.01	-.06	.05	.00	-	
9. 심각성	-.18***	-.25***	.04	.03	.06	-.14**	.00	.00	-
평균	7.08	7.25	1.50	3.78	45.9	2.54	1.50	1.50	1.50
표준편차	2.11	2.00	.50	.97	11.39	.97	.50	.50	.50

* $p<.05$ ** $p<.01$ *** $p<.001$

표 2.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의 기술통계(N=440)

독립변인	수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간적 거리감	저	220	7.17	2.13	-.593	.407
	고	220	6.99	2.10	-.531	-.018
공간적 거리감	저	220	7.23	2.13	-.642	.207
	고	220	6.93	2.08	-.491	.239
심각성	저	220	6.71	2.18	-.541	.225
	고	220	7.45	1.98	-.524	-.084

표 3.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의 공변량분석(N=440)

변산원	df	F	p	η_p^2
성별	1	9.61**	.002	.022
연령	1	5.75*	.017	.013
신체적 방어능력	1	12.04**	.001	.027
시간적 거리감(A)	1	.18	.674	.000
공간적 거리감(B)	1	1.91	.168	.004
심각성(C)	1	22.02***	.000	.049
A × B	1	.11	.745	.000
A × C	1	1.04	.308	.002
B × C	1	5.04*	.025	.012
A × B × C	1	.374	.541	.001
집단 내 오차	429	(3.85)		

A = 시간적 거리감, B = 범죄 유형, C = 심각성

* $p < .05$ ** $p < .01$ *** $p < .001$

다.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의 주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3 참조).

삼원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원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공간적 거리감과 심각성의 상호작용항($F(1,429)=5.04$, $p=.025$, $\eta_p^2=.01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과 심각성의 상

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공간적 거리감과 심각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심각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공간적 거리감이 높은 조건($M=7.35$, $SD=1.98$)과 낮은 조건($M=7.54$, $SD=1.99$)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215)=.373$, $p=.542$). 반면에 심각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공간적 거리감이 높은 조

건($M=6.31$, $SD=1.99$)보다 낮은 조건($M=7.11$, $SD=2.28$)에서 불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R(1,215)=5.65$, $p=.018$). 심각한 사건에서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없었으나 덜 심각한 사건에서는 가까운 사건이 먼 사건보다 더 높은 불안을 야기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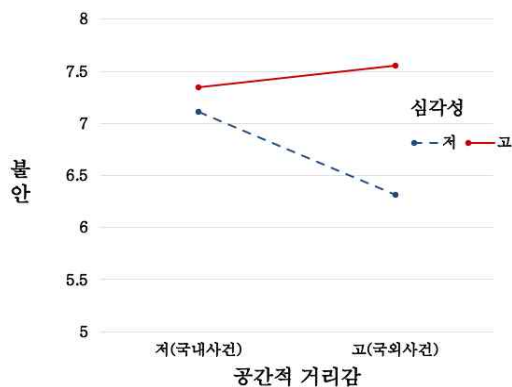


그림 1. 불안에 대한 공간적 거리감, 심각성 이원상호작용 효과

논 의

연구 1에서 여러 가설 중 일부 가설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심각성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즉, 심각성이 높은 범죄 조건에서 불안이 더 컸다. 다음으로 심각성과 공간적 거리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심각성이 높을 때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없었으나 심각성이 낮을 때는 공간적 거리가 큰 사건보다 공간적 거리가 작은 사건에서 불안이 더 높았다. 심각성이 높을 때 공간적 거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묻지마 범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결과(윤정숙, 김민지, 2013)를 초래한다

는 사회적 도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로 살인과 같이 심각성이 높은 묻지마 범죄를 보도하는 뉴스(이완수 등, 2016)는 대중이 묻지마 범죄가 항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완수, 최명일, 2019). 따라서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비해 폭행과 같이 심각성이 낮은 묻지마 범죄는 뉴스에 잘 보도되지 않으며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 덜 두드러질 수 있다(정연대, 이운호, 2013). 따라서 심각성이 낮은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공간적 거리감과 같은 요인이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정되었던 시간적 및 공간적 거리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변인 조작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결과이거나 다른 변인의 개입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김연수, 2022)와는 다른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의 원인이 조작의 실패가 아닌 범죄 유형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불안의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응답자들이 묻지마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느끼는 불안은 시간적 거리감과 공

간적 거리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감이 크든 작든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비슷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만으로 시간적 거리감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연구 1에서 제시된 범죄의 특성 때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묻지마 범죄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동기가 불분명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다(윤상연 등, 2023). 즉, 원인이나 동기의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여 높은 수준의 불안을 특히 느끼며, 이는 심리적 거리감의 효과를 조절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1의 결과가 묻지마 범죄에 한해서만 나타난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대비되는 특정인(친구) 범죄 시나리오를 추가하였다. 또한 실제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 피해가능성지각 변인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가설 2. 범죄유형, 시간적 거리감, 심각성에 따라 범죄불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심각성에 따른 범죄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범죄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은 범죄 불안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다만 연구 2에서는 시간적 거리감 × 범죄 유형 × 범죄 심각성의 8가지 조건 별 시나리오로 조작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와 특정인 범죄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 피해가능성지각 각 변인에 대해 11점 Likert 척도 형태의 단일 문항을 추가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 27.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 느끼는 정서가 불안과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또한, 묻지마 범죄와 특정인 대상 범죄 간의 특성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그 다음으로, Python 3.12.4을 사용하여 불안에 대한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주요변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보고하기 위해 Cohen's η_p^2 와 d를 사용하였다⁶⁾.

연구대상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20년 전) × 범죄 유형(묻지마 범죄 vs. 특정인 범죄) × 범죄 심각성(낮음 vs. 높음)의 8가지 조건별로 60명을 할당한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터넷 실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대

6) Cohen's d값은 .2정도면 효과가 작은 수준이고 .5 정도면 중간 수준, .8정도면 큰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Cohen, 2013).

이상의 성인 480명의 응답 결과를 얻었으나 불안과 피해가능성지각 간의 점수 차이(불안 0점, 피해가능성지각 10점)가 극단적인 3명의 데이터는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477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37명(49.7%)이고, 여성은 240명(50.3%)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0명(18.9%), 30대가 147명(30.8%), 40대가 138명(28.9%), 50대가 75명(15.7%), 60대 이상이 27명(5.7%)으로 30대와 40대 응답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측정도구

신체적 방어능력, 상태불안척도, 불안, 두려움의 측정방식은 연구 1과 동일했고, 새롭게 추가된 변인들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았다.

통제가능성지각

통제가능성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Likert 척도(0: 전혀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0: 반드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범죄 발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Likert 척도(0: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10: 반드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범죄 발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가능성지각

피해가능성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Likert 척도(0: 전혀 경험할 가능성이 없다, 10: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1년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 피해를 겪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

시간적 거리감(하루 전 vs. 20년 전) × 범죄 유형(문지마 vs. 특정인) × 범죄 심각성(낮음 vs. 높음)을 조작하였다. 시간적 거리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적 거리감이 높은 조건을 10년에서 20년 전으로 변경하였다.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2-1) 조건: 시간적 거리감(저), 범죄 유형(특정인 범죄), 심각성(고)

불과 하루 전인 00월 00일[PROG: 날짜는 설문 응답 하루 전날로 자동 적용] 오후 7시, 박씨(45)는 서울시 구로구 H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김씨(44)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다. CCTV 확인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꺼낸 후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는 김씨를 막아선 채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후 박씨는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둘도 없는 친구로 생각해 왔으며,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3천만원의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김씨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 자신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음에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최근 박씨는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인근 여관에서 홀로 생활해 왔으며, 평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박씨는 가끔 김씨와 H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셨는데,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직원들에게 쫓겨나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시2-2) 조건: 시간적 거리감(고), 범죄 유형(묻지마 범죄), 심각성(저)

20년도 더 전인 2003년 6월 20일 오후 7시, 박씨(45)가 서울시 구로구 H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신을 흉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CCTV 확인 결과, 박씨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른 후 맥주병을 깨서 휘둘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 계속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주인의 제지로 부상자 1명 이외에는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박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고 대치한 끝에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그로부터 수년 전 주식을 추천해준 투자전문가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대출까지 받아 2억 3천만원의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가격은 금방 곤두박질쳐서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었고, 투자전문가가 해외로 도주한 후 박씨는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인근 여관에서 홀로 생활하였으며, 평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박씨는 가끔 혼자 H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직원들에게 쫓겨나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불안과 두려움, 성별, 연령, 신체적 방어능력,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 피해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 통제가능성지각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안은 두려움($r=.89, p<.001$), 성별($r=.23, p<.001$), 상태불안($r=.16, p<.01$), 피해가능성지각($r=.5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신체적 방어능력($r=-.15, p<.01$), 시간적 거리감($r=-.16, p<.01$), 범죄 유형($r=-.22, p<.001$), 심각성($r=-.19, p<.001$), 통제가능성지각($r=-.15,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령과 예측가능성지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피해가능성지각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불안에 대한 범죄 유형, 시간적 거리감, 심각성의 공변량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세 가지 요인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성별, 신체적 방어능력, 상태불안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을 수행하기 전, 등분산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05$ 로 등분산 가정이 위배된 것으로 확인되어 삼원 변량분석에서 HC3(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Type 3)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신체적 방어능력, 상태불안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모형은 불안에 대해 17.0%의 설명력을 가졌다($R^2=.187, adj.R^2=.170$). 시간적 거리감($F(1,466)=9.25, p=.002, \eta_p^2=.019$), 범죄 유형($F(1,466)=22.37, p<.001, \eta_p^2=.046$), 심각성($F(1,466)=24.13, p<.001, \eta_p^2=.049$)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시간적 거리가 현재로부터 가까운 사건($M=6.81, SD=2.08$)일수록 먼 사건($M=6.08, SD=2.48$)보다 더 불안해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특정인 범죄 유형($M=5.94, SD=2.50$)보다 묻지마 범죄 유형($M=6.96, SD=1.99$)에, 덜 심각한 사건($M=6.01, SD=2.18$)보다 더 심각한 사건($M=6.89, SD=2.37$)에 더 불안해하였다.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47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불안	-											
2. 두려움	.89***	-										
3. 성별(남=1, 여=2)	.23***	.24***	-									
4. 연령대	-.03	.00	-.03	-								
5. 상대불안	.16**	.15**	.12*	-.05	-							
6. 신체적 방어능력	-.15**	-.15**	-.40***	-.12**	-.35***	-						
7. 시간적 거리감	-.16**	-.16**	.00	.01	-.07	.02	-					
8. 범죄 유형	-.22***	-.15**	.00	.03	-.04	.01	.01	-				
9. 심각성	-.19**	-.24***	.00	-.01	-.07	.07	.00	.00	-			
10. 피해가능성지각	.52***	.45***	.06	-.06	.14**	.02	-.08	-.28***	-.03	-		
11. 예측가능성지각	-.06	-.07	-.08	.00	.00	.16**	.01	.21**	.02	.13**	-	
12. 통제가능성지각	-.15**	-.18***	-.18***	.05	-.12*	.32***	.04	.12**	.11*	.06	.66***	-
평균	6.45	6.59	1.50	3.58	46.95	2.47	1.50	1.50	1.50	4.27	4.31	3.7
표준편차	2.32	2.35	.50	1.13	11.34	.98	.50	.50	.50	2.78	2.88	2.6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의 기술통계(N=477)

독립변인	수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간적 거리감	저	239	6.81	2.08	-.493	-.169
	고	238	6.08	2.48	-.545	-.007
범죄 유형	묻지마 범죄	238	6.96	1.99	-.587	.403
	특정인 범죄	239	5.94	2.50	-.417	-.284
심각성	저	239	6.01	2.18	-.438	.224
	고	238	6.89	2.37	-.853	.414

표 6.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의 공변량분석 (N=477)

변산원	<i>df</i>	<i>F</i>	<i>p</i>	η_p^2
성별	1	24.79	.000	.050
신체적 방어능력	1	.028	.866	.000
상태불안	1	3.22	.073	.007
시간적 거리감(A)	1	9.25**	.002	.019
범죄 유형(B)	1	22.37***	.000	.046
심각성(C)	1	24.13***	.000	.049
A × B	1	4.50*	.034	.010
A × C	1	1.56	.212	.003
B × C	1	.81	.369	.002
A × B × C	1	.44	.506	.001
집단 내 오차	466	(2076.43)		

A = 시간적 거리감, B = 범죄 유형, C = 심각성

* $p < .05$, ** $p < .01$, *** $p < .001$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참조). 또한 이원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시간적 거리감과 범죄 유형의 상호작용항($R(1,475)=4.50$, $p=.033$, $\eta_p^2=.0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적 거리감과 심각성, 범죄 유형과 심각성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유의하게 나온 시간적 거리감과 범죄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정인 범죄 유형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이 큰 조건($M=5.37$, $SD=2.68$)보다 작은 조건($M=6.52$, $SD=2.17$)에서 불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R(1,234)=13.31$, $p<.001$). 반면에 묻지마 범죄 유형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이 작은

조건($M=7.10$, $SD=1.96$)과 큰 조건($M=6.81$, $SD=2.02$)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233)=.949$, $p=.331$). 즉, 응답자들은 특정한 범죄 유형과 다르게 묻지마 범죄 유형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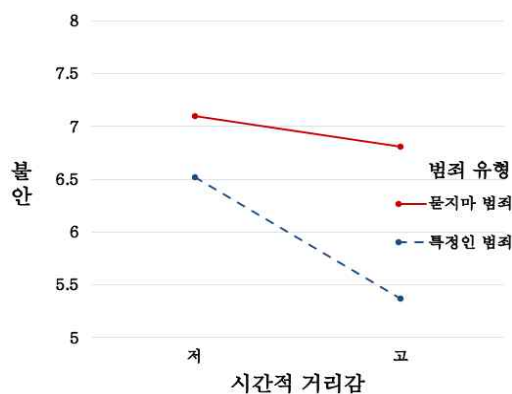


그림 2. 불안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범죄 유형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분석

다음으로 범죄 유형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묻지마 범

죄와 특정한 대상 범죄 유형 간에 범죄 지각과 관련된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범죄 유형 간에 신체적 방어능력, 피해가능성지각, 통제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 유형에 따라 통제가능성지각($t(475)=-2.60$, $p<.01$), 예측가능성지각($t(475)=-4.68$, $p<.001$), 피해가능성지각($t(475)=6.23$, $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특정한 범죄보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통제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더 낮게 지각했다. 반대로, 특정한 범죄보다 묻지마 범죄에서 피해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표 7 참조).

피해가능성지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의 공변량분석

마지막으로, 피해가능성지각에 대한 세 가지 요인(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과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가능성지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상태불안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변량

표 7. 범죄 유형에 따른 통제가능성지각, 예측가능성지각, 피해가능성지각 비교($N=477$)

종속변수	조건	평균	표준편차	t	p	d
통제가능성지각	묻지마 범죄	3.39	2.56	-2.60**	.009	2.82
	특정인 범죄	4.02	2.72			
예측가능성지각	묻지마 범죄	3.71	2.87	-4.68***	.000	2.64
	특정인 범죄	4.92	2.76			
피해가능성지각	묻지마 범죄	5.04	2.40	6.23***	.000	2.68
	특정인 범죄	3.51	2.92			

** $p<.01$, *** $p<.001$

표 8. 피해가능성지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의 기술통계(N=477)

독립변인	수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간적 거리감	저	239	4.49	2.74	-.086	-.986
	고	238	4.05	2.81	.160	-.999
범죄 유형	묻지마 범죄	238	5.04	2.40	-.150	-.546
	특정인 범죄	239	3.51	2.92	.399	-1.057
심각성	저	239	4.20	2.64	.35	-1.020
	고	238	4.35	2.92	.054	-1.085

표 9. 피해가능성지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범죄 유형, 심각성 공변량분석 (N=477)

변산원	<i>df</i>	<i>F</i>	<i>p</i>	η_p^2
상태불안	1	5.36*	.021	.011
시간적 거리감(A)	1	2.21	.138	.005
범죄 유형(B)	1	36.92***	.000	.073
심각성(C)	1	.27	.602	.001
A × B	1	.09	.763	.000
A × C	1	.55	.457	.001
B × C	1	.13	.715	.000
A × B × C	1	.19	.664	.000
집단 내 오차	468	(3323.49)		

A = 시간적 거리감, B = 범죄 유형, C = 심각성

* $p < .05$, ***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 등분산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 < .05$ 로 등분산 가정이 위배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변량분석에서 HC3(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Type 3)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불안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

변량 모형은 불안에 대해 8.2%의 설명력을 가졌다($R^2 = .098$, $\text{adj. } R^2 = .082$). 범죄 유형($F(1, 468) = 36.90$, $p < .001$, $\eta_p^2 = .073$)의 주효과만 확인되었으며, 특정인 범죄 유형($M = 3.51$, $SD = 2.83$)보다 묻지마 범죄 유형($M = 5.04$, $SD = 2.40$)에서 피해 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시간적 거리감과 심각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9 참조).

논 의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시간적 거리감, 범죄유형, 심각성 등 조작된 변인의 효과는 물론 시간적 거리감과 범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호작용효과는 연구 2의 결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징인 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시간적 거리감에 상관없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 큰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더 즉각적인 위협으로 느끼며, 따라서 피해 가능성을 더 크게 지각한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범죄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과대 지각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반면, 특징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나 동기 등을 통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사람들이 더 낮은 피해 가능성을 지각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덜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징인 범죄가 대개 개인적인 갈등이나 원한 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종합논의

이 연구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범죄 불안

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연구(연구 1)의 결과는 범죄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수준 이론은 물론, 기존의 연구(김연수, 2022)와 달랐으며,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시나리오에 사용된 범죄 유형, 즉 묻지마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1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특징인 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시간적 거리감에 상관없이 묻지마 범죄에서 느끼는 불안이 컸다.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서는 특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는 달리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불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지적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인 범죄 사건과 다르게 묻지마 범죄 사건이 심리적 거리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수준은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현정, 2014). 심리적 거리감은 위협에 대한 인식 및 반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Jones et al., 2017),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을 의미하는 주관적 위험인식(perceived risk)은 발생 확률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연수, 2022). 주관적 위험인식은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

에서 범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문지마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공포를 양산한다(정연대, 이운호, 2013). 그리고 이러한 문지마 범죄의 특성은 발생 확률적 차원으로 설명되는 심리적 거리감(Öhman, 2008)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둘째, 범죄 보도는 범죄에 대한 공포 및 심리적 외상, 범죄 발생률 지각 및 범죄 피해가능성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우현 등, 2016). 범죄 사건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개인과 집단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도록 만든다(권인숙, 이화연, 2011). 이완수 등(2016)의 한국 범죄 보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강남역 문지마 살인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자극적인 보도 형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특히 선정적으로 다루지는 문지마 범죄의 폭력성이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의 범죄 보도로 인해 사람들은 범죄 사건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되고 이는 사람들에게 현재화된 문지마 범죄에 대한 도식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Gerbner & Gross, 2017). 또한 이러한 문지마 범죄의 도식은 범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문지마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학문적 규정과 이해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윤상연 등, 2023).

셋째, 서민송과 유환희(2018)는 심리학적 분야의 간접 외상에 근거하여 자연적 재난(경주 지진)과 사회적 재난(문지마 범죄)을 비교하였다. 문지마 범죄의 경우, 사람들은 자연적 재난보다 분노 수준이 높았으며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사람들은 예측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재난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문지마 범죄에 대해 더 큰 공포감을 느끼며, 충격 외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문지마 범죄가 다양한 외상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불안 유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 불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들이 범죄 유형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을 돕고자 하였다. 범죄 불안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박정선, 이성식, 2010), 범죄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범죄 불안 혹은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신지희 등, 2020). 언론에서는 문지마 범죄를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의 인식틀(정확한 집계와 원인 규명)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의 네 가지 차원 중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만 선택하여 시나리오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감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심리적 거리감 외에도 사회적 거리감과 확률적 거리감도 포함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확률적 거리감에 따라 범죄 사건에 대한 불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거리감 연구는 심리적 거리감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문지마 범죄 불안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 1과 연구 2에서 동일한 변인인 시간적 거리감과 범죄 심각성은 시나리오에서 설명된 방식이 변경되었다. 시간적 거리감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조작하기 위하여 '10년 전'을 '20년 전'으로 기간을 더 늘렸다. 반면, 범죄 심각성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한 명의 피해자'인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1과 최대한 동일한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통된 조건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지마 범죄와 특정인 범죄는 법률이나 학술적 분류에 기초한 죄명이나 범죄유형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고착된 관용적 용어(문지마 범죄)와 이에 대응하는 범죄 유형으로 만든 조어(특정인 범죄)이다. 이후에는 범죄의 속성에 기반한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피해가능성 지각과 불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른 차이, 성별 등 응답자 개인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 연구에서는 범죄 두려움, 범죄 불안 등 다양한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범죄유형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의 양상에 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학술적 정의와 별개로 개인적 수준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지마 범죄와 특정인 범죄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개념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범죄 불안에서 심리적 거리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지마 범죄의 특성 및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문지마 범죄가 갖는 심리적 파급 효과의 심각성 및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은 물론, 문지마 범죄의 특성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문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대응뿐 아니라 실질적인 감소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진용, 여준상 (2020). 사회적 불안이 해석수준과 중심부(vs. 주변부) 속성 강조 제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31(6), 77-95.
- 권인숙, 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85-118.
- 김범준 (2007).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3), 127-153.
- 김연수 (2022). 범죄두려움의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 연구: 위험해석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1(2), 59-86.
- 김해룡, 박민수 (2013). 비영리기관 후원모금 전략: 기부지역에 따른 공간적 거리감과 기부 메시지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광고*

- 학연구, 24(4), 105-120.
- 노성훈, 조준택 (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 리얼미터 (2016. 10. 28). 국민 10명중 7명, '문지마 범죄' 불안 경험했다.
<https://libguides.khu.ac.kr/seoul/citationNreferencing/apastyle/RefArticles#s-lg-box-22014046>
- 박경규 (2021).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9(2), 141-163.
- 박정선, 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박지선, 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295-316.
- 박철현, 박성훈 (2015).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4년. *공공정책연구*, 32(1), 73-96.
- 박현정 (2014). 질병 예방 행동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 연구. *한국언론학보*, 58(3), 344-377.
- 서민송, 유환희 (2018).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간접외상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75-78.
- 신지희, 고나영, 김은혜, 장현석 (2020).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두려움 변화 연구. *한국범죄학*, 14(3), 229-257.
- 양영유, 이완수 (2020).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기자과 범죄뉴스 모니터 집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4, 44-83.
- 오지현, 김영옥 (2021). 위협 수치 제시 형식과 단위가 코로나 19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거리감과 부정적 감정의 매개 효과 및 구성원 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광고학연구*, 32(2), 7-39.
- 유성진, 신민섭, 김중술 (2003). 위협에 대한 재평가와 걱정증상, 상태불안 및 인지평가차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03-319.
- 유우현, 정용국, 정지희 (2016). 폭력 범죄 보도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및 인지적 영향: 두려움 반응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두려움 반응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1), 42-67.
- 윤상연, 백승경, 허태균 (2023). 문자와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한국범죄학*, 17(3), 83-100.
- 윤선영, 김나란, 임은지, 이수정 (2017). 문자와 범죄자의 심리특성과 피해의식. *한국범죄학*, 11(2), 29-65.
- 윤정숙, 김민지 (2013). 문자와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2014). 문자와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다정, 양재원 (2023). 사회불안에서의 안전 단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4), 639-651.
- 이수진, 김형범, 허휴정 (2023). 우울 및 불안 장애 환자의 신체자각 특성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62(1), 63-69.
- 이아, 이건호 (2022). 범죄 지역과 범죄 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연구: 범죄 보도 댓글에 나타난 수용자의 지각된 위

- 험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6, 106-135.
- 이완수, 최명일 (2019). 뉴스 언어의 선정성과 언론의 상업성: '김학의 성접대 사건' 보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105-157.
- 이완수, 홍성철, 송상근, 최명일 (2016).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재경 (2024).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 장현석 (2016). 가시적 경찰활동 정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8(1), 317-340.
- 정연대, 이운호 (2013).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12(1), 213-246.
- 정혜성, 박웅일, 임진영, 황의갑 (2023).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7(2), 49-72.
- 정혜욱 (2024).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26(3), 97-138.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29-51.
- 지서이, 이정원 (2023). 언론의 디지털 성범죄 보도 프레임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 범죄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9(3), 147-166.
- 차훈진 (201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255-286.
- 최종술 (2016).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6(2), 127-156.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tag=&act=view&list_no=371501&ref_bid=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 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hadee, D., Austen, L., & Ditton,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ikelihood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Evaluating risk sensitivity as a mediating concept.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1), 133-153.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 Darke, P. R., Brady, M. K., Benedictus, R. L., & Wilson, A. E. (2016). Feeling Close from Afar: The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in Offsetting Distrust in Unfamiliar Online Retailers. *Journal of Retailing*, 92(3), 287-299.
- Darker, C., & Whittaker, A. C. (2020). Risk perception. In Gellman, M.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pp. 1925-1927).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Epstein, S. (1972). The nature of anxiety with emphasis upon its relationship to expectancy.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pp. 291-337). New York: Academic Press.
- Gao, Y., Zhang, Q., He, R., Liao, J., Feng, H., Deng, H., Hu, Y., & Mo, L. (2022). The Influences of Social Distance on Anxiety Caused by Spatial and Temporal Distance.
- Gerbner, G., & Gross, L. (2017).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In *The Fear of Crime* (pp. 169-195). Routledge.
- Gouseti, I. (2016). *Fear of crime as a way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measurement and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risk construal* [Doctoral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PhD thesis.
- Gouseti, I., & Jackson, J. (2015). Construal-level theory and fear of crime. In *Psychology of fear, crime and the media* (pp. 22-39). Psychology Press.
- Jackson, J. (2011). Revisiting risk sensitivity in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8(4), 513-537.
- Jones, C., Hine, D. W., & Marks, A. D. (2017). The future is now: reducing psychological distance to increase public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37(2), 331-341.
- Lake, J. I., & LaBar, K. S. (2011).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in anxiety: a new direction for emotional timing research. *Frontiers in Integrative Neuroscience*, 5(55), 1-4. <https://doi.org/10.3389/fnint.2011.00055>
-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 Lewis, M., Haviland-Jones, J. M., & Barrett, L. F. (Eds.). (2008). *Handbook of emotions* (3rd ed.). The Guilford Press.
- Marks, I., & Lader, M. (1973). Anxiety states (anxiety neurosis): a review.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59(1), 3-18.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cCrea, S. M., Wieber, F., & Myers, A. L. (2012). Construal level mind-sets moderate self- and social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51-68.
- Mellberg, J., Chataway, M. L., & Ball, M. J. (2024). Fear from a distance: testing a new model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fear of crime. *Psychology, Crime & Law*, 1-21. <https://doi.org/10.1080/1068316X.2024.2345687>
- Nook, E. C., Schleider, J. L., & Somerville, L. H. (2017). A linguistic signature of psychological distancing in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3), 337-346.
- Öhman, A. (2008). Fear and anxiety. In Lewis, M., Haviland-Jones, J. M., Barrett, L. F., *Handbook of emotions* (2nd ed., pp. 709-729). The Guilford Press.
- Roche, S. P., Wilson, T., & Pickett, J. T. (2020). Perceived control, severity, certainty, and emotional fear: Testing an expanded model of deterr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7(4), 493-531.
- Ross, C. E. (1993). Fear of victimization and heal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159-175.
- Severin, W. J., & Tankard, J. W. (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 in the mass media (5th ed)*. New York, NY: Longman.
- Smith, L. N., & Hill, G. D. (1991).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and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24*(4), 315-327.
- Spielberger, C. D.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adults. *Mind Garden*.
- Steers, R. M., Mowday, R. T., & Shapiro, D. L. (2004). The future of work motivation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379-387.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 Williams, L. E., Stein, R., & Galguera, L. (2014). The distinct affective consequences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6), 1123-1138.
- Wilson, J. Q. (1982). Broken windows. *Critical issues in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논문 투고일 : 2024. 10. 17
1 차 심사일 : 2024. 11. 21
게재 확정일 : 2025. 01. 0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on Anxiety of Crime: Differences between Motiveless and Targeted Crimes

Danhee Kim Hyewon Park Sangyeon Y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temporal and spatial) on crime anxiety. In Study 1, a total of 440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ght different scenario conditions: temporal distance (one day ago vs. ten years ago), spatial distance (domestic vs. international (USA)), and crime severity (low vs. high), with 55 participants per condition. Respondents read a scenario about “a motiveless crime incident,” which was set differently for each condition and then measured their level of anxiety on an 11-point Likert sca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effects of temporal and spatial distance were not confirmed, and only the main effect of severity was identified. Interaction effects were observed only between spatial distance and severity. Specifically, in low-severity crime incide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anxiety levels depending on spatial distance, but in high-severity crime incid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anxiety levels based on spatial distance. Study 2 was conducted to find the reason why the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anxiety was not significant in Study 1. In Study 2, to verify if the results of Study 1 were a unique pattern appearing only in motiveless crimes, an additional scenario contrasting with motiveless crimes, targeting a specific individual (friend), was added. In Study 2, 60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ach of the eight conditions of temporal distance (one day ago vs. twenty years ago), crime type (motiveless crime vs. specific individual crime), and crime severity (low vs. high), totaling 480 participants (excluding 3 outliers).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for temporal distance, crime severity, and crime type. Additionall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mporal distance and crime type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crimes targeting specific individuals, the expected difference in anxiety based on temporal distance was observed, as anticipated in Study 1. However, in the case of motiveless crim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anxiety based on temporal distan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motiveless crimes cause high anxiety regardless of temporal distance, differing from existing studies where temporal distance effects on crime anxiety were observed.

Key words : anxiety of crime, Construal-level Theory, temporal distance, spatial distance, seriousness, motiveless crime